

No.145

Japan Weekly Digest

2012. 9. 08 ~ 2012. 9. 14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일본정부, 신에너지·환경 전략 발표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일본경제, 2개월 연속 하향수정
- 일·중경제협회, 악화된 일·중 관계에 파이프 역할 나서
- 일본 TPP에 참가하는 경우, GDP 2.24% 증가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

대한일경제협회
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경제초점 : 일본정부, 신에너지·환경 전략 발표

□ 2030년대 원전제로, 온난화가스 삭감목표 철회

- 일본정부는 신에너지·환경 전략을 9월 14일 발표. 초점이 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제언에 따라서 「2030년대에 원전가동제로」로 명기
 - 대체 전원으로 화력발전의 증강을 제시, 발전소의 신·증설을 위한 환경평가 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
 - 2020년에 온난화가스를 1990년 대비 25%삭감하는 목표는 사실상 철회되고 2030년에 20% 삭감하는 선에서 후퇴
- 기본방침은 「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의 조기 실현」에 두고 민주당의 제언에 따라 △40년의 원전 운전제한제(40년의 폐기연한)*를 엄격히 운용, △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안전확인을 받은 원전만을 재가동, △원전의 신·증설 금지 등 3원칙을 제시
 - * 가동연수가 40년을 넘은 원자로는 운영을 중지하는 제도
- 원전의 대체 전원은 화력발전과,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양측으로 설정. 화력발전 중 특히 온난화대책의 일환으로 사용을 억제해 온 석탄 화력을 「기본전원」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
- 일본정부는 2020년 시점의 온난화가스를 1990년 대비 25%삭감한다는 국제적인 목표를 표방해왔으나, 이번 전략에서 달성이 어렵게 되었음을 명시
 - 연말까지 다시 2013년 이후 온난화대책의 계획을 수립. 또한 재생에너지는 2030년 시점의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로 늘릴 계획임
-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이용은 중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할 방침을 전략에 담음. 이제까지 전력회사에 맡겨온 재이용사업에 국가가 책임을 질 방침을 명기하고, 정책전환에 반발하고 있는 아오모리현을 배려

□ 2030년에 10%이상 절전

- 원안은 가정이나 기업 등 전력을 사용하는 측에도 큰 절전 ·에너지절약 노력

목표를 제시하고 있음

- 2010년 시점에서 1.1조엔kw/h이었던 전기사용량을 절전으로 2030년에는 10%(1,100억kw/h)이상 절감을 명기
- 우선 2015년까지 2%, 2020년까지 5%의 절전을 목표
- 또한, 2010년 시점에 원유환산으로 약 3.9억kl였던 에너지소비량을 2030년까지 19%이상 절감. 그러나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고려하여, 2015년의 절감목표를 4%, 2020년에는 8%로 완화시켜 설정
- 발광다이오드(LED)조명을 2030년까지 100% 전면 도입시키는 외에, 도시가스로부터 전기나 열을 발생하는 가정용연료전지를 2010년 시점의 10,000대에서 2030년에는 530만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
- 이제까지 온난화대책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경원시켰던 화력발전의 재활용도 제시하고 있음
- 원안은 온난화 대책에 문제가 있으나, 일본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, 석탄 화력이나 액화천연가스(LNG)화력발전소의 신·증설 계획도 제시하고 있음

□ 원전, 당분간은 중요 전원

- 일본정부가 마련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의 원안은 2030년대에 원전가동 제로가 가능하도록 정책적 자원을 투입, 탈원전 사회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제시
- 그러나 당분간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을 중요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명기.
- 2030년대 원전가동 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상기 3원칙과 관련하여, 2030년 시점에서 원전의존도는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3원칙을 철저히 지키려면 계상으로는 15%전후가 된다는 것
- 한편,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의 재처리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음
- 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매장하는「직접 처분」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는 한편, 원전 제로가 되면 원래는 필요 없게 되는 재처리사업도 계속, 아오모리현을 최종처분지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엄수하겠다는 내용도 명기

- 이는 재처리를 전제로 핵연료사이클 정책에 협력해 온 일부 지방 외에 미국 등 국제사회도 배려한 것임.

□ 「원전제로 방침」에 대한 대내외적인 반대

- 신에너지전략은 민주당의 제언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, 9월 6일 민주당이 결정한 「원전 제로 방침」이 대내외적인 반대에 부딪히자, 원안에서는 이를 배려하여 조정한 것임
- 원안에서는 원전 제로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중단 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, 원전제로에 관계없이 핵연료의 재처리를 계속하기로 함
- 민주당의 「원전 제로 방침」에 대해 대내적으로는 경제계와 일부지방이 반대하고 있음
 - 경단련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는 원전제로 방침으로 전기요금 상승→산업공동화 우려가 있다는 것임
 - 지방에서는 특히, 아오모리현이 강하게 반발. 사용이 끝난 핵연료시설이 입지해있는 아오모리현은 국가가 원전제로 방침에 따라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보관중인 핵연료를 아오모리현 밖으로 반출해야하는 부담이 큼
- 대외적으로 미국과 프랑스가 반대
 - 미국은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핵연료의 사이클을 미국에 대신해서 할 수 있었는데(미·일원자력협정에 의거), 원전 제로 방침으로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이 여의치 못하게 됨
 - 원자력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프랑스는 일본의 원전제로방침에 따라 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재처리 관련 수탁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됨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□ 일본경제, 2개월 연속 하향 수정

- 9월 14일 관계각료회의에 제출된 9월 월례경제보고회의에서 경기상태에 대해 지난달의 「완만한 회복세」에서 「경기의 담보상태」로 2개월 연속 하향 수정
 - 2개월 연속 하향수정은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2008년 10월~2009년 2월 연속 5개월 이후 처음임
 -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유럽경제의 감속과 중국의 대중수출 감소를 반영
- 향후, 에코카보조금 종료에 따른 생산부진 가능성도 있어, 당분간은 경기의 약세가 예상된다는 것으로 부문별로는 개인소비, 설비투자, 생산, 기업수익 등 4개 항목을 하향 수정
 - 개인소비는 에코카 보조금 효과의 소멸에 따른 신차 판매대수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
 -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약세가 보여 진다는 표현을 추가
 - 생산은 최근 담보상태에서 약세를 포함하고 있다고 2개월 연속 하향 수정했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감속에 따른 수출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음
 - 기업수익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다는 표현을 추가
 - 한편, 도산건수에 대해서는 대지진 부흥수요에 의한 건설업을 중심으로 건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
- 한편, 내각부에 의하면 2/4분기 GDP는 전기 대비 실질 0.2%증가(연률 0.7% 증가)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8월에 공표한 속보치(0.3%, 연률 1.4%)를 하향 수정한 것임
 - 재고투자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해외수요(수출)가 부진을 거듭하는 가운데 부흥수요에 힘입은 내수가 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구도에는 변함이 없음

□ 일·중경제협회, 악화된 일·중 관계에 파이프 역할 나서

- 일본 대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일중경제협회 대표단이 9월 22일부터 중국을 방문, 센카쿠도(중국명 다오위다오)를 둘러싼 양국 관계가 긴장되는 가운데, 정치와는 별도로 경제관계의 파이프 역할 유지에 나섬
 - * 금년 38회제인 방중단에는 일·중경제협회의 초후지오(張富士夫)회장(도요타자동차 회장)외에 경단련 요네쿠라 히로마사(米倉弘昌)회장을 비롯하여 경제계 약 170명의 고위인사가 참가할 예정
- 중국은 방중단을 받아들여 원자바오 등 정부수뇌와의 회담을 예정하고 있으며, 통상정책 및 자원에너지 문제 등에 관하여 폭넓게 의견교환을 할 예정
- 요네쿠라 경단련회장은 “양국 정부관계와 경제관계는 다르며, 센카쿠도 문제가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다” 는 견해를 보임
- 일본대표단은 상해시에서 일·중이 공동개최하는 환경기술전시회 및 천연자원이 풍부한 산서성을 시찰한 후, 중국의 수뇌 및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의 간부와 회담이 예정되어 있음
- 과거 일·중관계가 정치문제로 긴장관계가 조성될 때마다 경제계가 양국을 잇는 파이프 역할을 담당해옴
 - 코이즈미정권 당시 2005년에는 코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발언 등으로 일·중 관계에 긴장국면이 조성
 - * 당시 오쿠다 경단련 회장은 같은 해 9월 일중경제협회의 방중단의 일원으로 원자바오 수상과 회담
 - 4일 후 다시 방중하여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극비리에 회담하였는데 이때 코이즈미 수상으로부터 후진타오 주석에게 메시지를 부탁받았다고 함

□ 일본, TPP에 참가하는 경우, GDP 2.24% 증가

- 아태지역의 산·관·학으로 구성된 태평양경제협력회의(PECC)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협력체(TPP)에 참가하는 경우 GDP가 2.24%, 금액으로는 1,194억달러 증대시킬 것이라는 시산결과를 제시

- 동 시산결과는 미국 브랜다이즈 대학 피터페트리 교수팀이 독자적인 경제모델을 사용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관세철폐만이 아니고,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도 상정한 것이 특징임
- 비관세장벽 철폐 외에 무역확대에 의한 수출기업의 증가 등의 효과도 가미한 결과, 일본정부의 시산결과(최대 3조 2,000억엔)의 3배 가까운 경제적 효과를 제시
- o 특히 TPP에 교섭중인 9개국에 멕시코, 캐나다, 일본, 한국이 참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세계 전체의 GDP를 0.29%, 2,947억달러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
- o ASEAN 10개국과 한·중·일 3개국이 FTA를 체결하는 경우 일본은 1,031억달러, 세계 전체로는 5,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
- o 일본으로서는 TPP에 참가하는 편이 GDP증대효과 면에서 이익이나, 세계 전체로 보면 ASEAN+한·중·일 FTA에 의한 영향이 더 큼
- o PECC는 아시아 쪽이 무역장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철폐함으로써 보다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
- 미국·중국·일본, 아세안 등 아태지역이 거의 모든 FTA를 맺는 FTAAP(아태자유무역권)이 실현되는 경우, 일본은 2,281억 달러, 세계 전체로는 1조 9,00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산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대왕제지	2012.9.8	종이기지귀	중국	직접투자/현지생산
미쓰비시UFJ 은행	2012.9.9	금융	러시아. 러시아 극동지방정부	업무제휴/극동진출 일본기업지원
일본배합사료· 일동제망	2012.9.11	수산물양식	인도네시아/PT 러키산드라브 라타마	자본제휴/수산물양식 합작사업, 지분 1/3씩 출자
메이지세르카 파르마	2012.9.11	제약	베트남, 러시아	판매제휴/항생물질 판매
미야사카 양조	2012.9.11	식료품	인도네시아	직접투자/된장제조공장 설립, 투자규모 1억엔
다케다약품	2012.9.12	심혈관 관련 치료약	러시아	직접투자/공장매수, 투자규모 약 75억엔
이토츄상사	2012.9.13	통조림·과즙 의료	미국/도르푸드 컴파니	직접투자/사업 매수, 인수금액 1,320억엔
에자이	2012.9.13	제약	미국/세빈왁친 연구소	업무제휴/열대병 왁친개발을 위한 제휴
석유천연가스· 금속광물자원 기구(JOGMEC)	2012.9.13	세일가스 개발	캐나다	직접투자/국제석유개발기구와 넛키의 현지법인에 출자, 투자규모 400억엔
스미토모고무	2012.9.14	타이어	터키	직접투자/타이어공장 건설, 투자규모 약 400억엔
대일본스미토 모제약	2012.9.14	제약	미국	직접투자/연구개발거점 설립, 투자규모 약 15억엔

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TPP와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다이너미즘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9월13일

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kikan89/89ishikawa.pdf>

(2) 『산업구조심의회 유통구조부회 보고서 : 새로운 라이프라인으로서 유통업』
경제산업성, 9월13일

*출처: <http://www.meti.go.jp/report/downloadfiles/g120911aj.pdf>

(3) 『의료산업집적, 피츠버그의 집적모델 UPMG』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, 9월 13일

*출처: http://www.canon-igs.org/column/pdf/120912_matsuyama_approach.pdf

(4) 『특구의 현황』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, 9월13일

*출처: <http://www.jmari.med.or.jp/research/dl.php?no=487>